

학고재 기자간담회

윤 향 란 YOON Hyanglan

I. 전시 소개

1. 전시개요

일 시 : 2010년 11월 24일 - 12월 31일

장 소 : 학고재갤러리 신관 (서울 종로구 소격동 77)

출품작 : 파리에서 고국을 그리며 그린 배추 형태의 드로잉-콜라주를 비롯하여 작가의 삶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산책>드로잉과 신작 <붓놀이>연작이 소개된다.

2. 전시내용

학고재갤러리 신관에서는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불화가 윤향란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홍익대와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한 그는 자유로운 선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와 세상에 대한 반응을 탄력적으로 표현한다.

윤향란의 작업은 크게 배추 형태의 드로잉-콜라주와 생의 에너지를 표현한 드로잉연작, 신작 <서류위의 붓놀이>시리즈로 나뉜다. 그가 선택한 '배추'는 고국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상징이다. 캔버스 위에 종이를 붙여 배추이미지를 그리고 그 종이에 물을 묻혀 다시 뜯어낸 뒤 새로운 캔버스에 작품을 붙여서 구성하는 작업과정에는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의 배추시리즈 외에도 작가의 프랑스 생활의 일면이 담긴 드로잉 <서류위의 붓놀이>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전시된 서류들은 25년 이상 프랑스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다. 그 위에 가득찬 선들에는 작가가 타국에서 느낀 애환과 고통이 녹아들어 있다. 본 전시를 통해 프랑스에서 곳곳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향란의 풍성해진 작업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3. 전시의 맥

- 이방인의 삶의 애환을 ‘놀이’ 로 승화하다.
- 은밀한 사생활을 드러냄으로써 위로받다.
- 배추, 고국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형상
- 선, 투명한 자아가 만들어내는 생의 에너지

이방인으로서의 삶의 애환을 ‘놀이’ 로 승화하다.

윤향란은 25년 이상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 하고 있다. 그녀가 두 번째 삶을 시작한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는 수많은 거장들의 혼이 남겨진 도시, 화가라면 한번쯤 꿈꾸는 도시이다. 작업을 자신의 삶의 행복이자 희망이라고 말하는 작가 역시 이러한 예술과 낭만을 꿈꾸며 파리로 떠났지만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에 따른 불편함과 피곤함이 따랐다. 작가는 작업하기에도 부족한 일상 속에서 매달 끊이지 않는 세금 신고서, 작가 등록증, 집세, 고지서, 의료보험 등의 서류들이 큰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고백한다.

〈서류위의 붓놀이〉시리즈의 투박하고 추상적인 선에는 그러한 삶의 애환이 녹아들어있다. 실제로 사용했던 서류들을 차용하여 붓으로 툭툭 찍어 내리고 긁는 행위를 통해 작가는 스스로 정서적인 해방을 만끽한다. 이렇게 삶의 압박과 부담을 ‘놀이’ 로 해소하는 작가의 태도는 삶의 애환과 한을 ‘흥’ 으로 승화했던 한국 고유의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

은밀한 사생활을 드러냄으로써 위로받다.

세금 신고서, 작가 등록증, 의료보험 등의 서류들은 작가가 외국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자 문서이다. 하지만 이제 작가의 놀이거리가 된 이러한 공과금 영수증들은 그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녀의 붓놀이가 개입된 서류들은 이제 더 이상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작품으로써 관객 앞에 놓여 졌기 때문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드러내는 작가의 행위는 자신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그것들을 위로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여기서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는 푸른색의 획들은 바로 ‘희망’ 을 상징한다.

배추, 고국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형상

“배추그림이라도 그리면서 속을 풀어본다. 한국의 정서가 듬뿍 배어 있는 그런 배추,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듯 그런 배추를 그리고 싶다” (작가노트 中 발췌)

캔버스 위에 종이를 붙여 배추이미지를 그리고 그 종이에 물을 묻혀 다시 뜯어낸 뒤 새로운 캔버스에 작품을 붙여서 구성하는 작업과정에는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 작가는 <배추>작업을 완성할 때 종이 찢고 붙이는 과정을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 비유한다. 그에게 배추는 고국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소산이다. 작가는 한국에서 매일 김치를 먹으며 살다가, 김치가 귀한 프랑스에 가끔 배추라도 발견하면 마치 가족을 만난 듯이 반가웠다고 한다.

‘그림’이라는 단어가 ‘그리워하다’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설이 있듯 윤향란의 작업은 배추, 김치 그리고 어머니와 고국을 그리워하다 탄생된 그림이다. 그렇기 때문일까. 화면에 남겨진 자유로운 종이자국과 파스텔로 그린 선의 조화는 그 옛날 인류의 벽화처럼 본능적이며 순수한 표현력을 지닌다.

김치를 담그듯 그려진 그녀의 수공적인 작업은 그림 곳곳에 작가의 직관과 영혼이, 그리고 한국의 정서가 배어있다.

선, 투명한 자아가 만들어내는 생의 에너지

작가는 큰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작업이 막막한 순간이면 드로잉을 하며 마음을 다진다고 한다. 즉 그에게 드로잉은 대작을 시작하기 전에 늘 거치는 의식의 준비단계이지만 그것으로 또한 하나의 완벽한 완성이다. 아주 간단한 선 한 줄이지만 흰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단순한 그림인 것이다.

종이에는 작가의 에너지가 담긴 섬세하고 날카로운 선들이 가득하다. 가늘고 짙은 선들이 위에서 아래로, 수평으로 오가며 각각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 선들은 무엇인가를 재현한다기보다 작가 스스로의 인생여정을 나타낸다. 여기 ‘산책’이라고 붙여진 드로잉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과 세상에 대한 반응의 흔적이다. 자신의 기억을 기반으로 마치 누에가 실을 뽑아내듯 투명한 자아가 스스럼없이 뽑아낸 선들은 수많은 이야기와 생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II. 작가 소개

1. 윤향란

윤향란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파리국립미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을 졸업한 뒤 프랑스로 건너가 25년 이상을 이방인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어머니와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크게 배추 형태의 드로잉-콜라주와 자신의 삶의 여정을 표현한 드로잉, 근작으로 〈서류위의 붓놀이〉시리즈가 있다. 작가는 장소와 공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루기 편한 파스텔과 종이라는 기본적인 재료를 사용하며 자신이 지닌 생의 에너지를 유연하게 발산한다.

현재 파리에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총 10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2. 작가약력

윤 향 란 尹 香 蘭

1960 서울 생
1990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졸업
현재 파리와 서울에서 활동 중

개인전

2010 학교재갤러리, 서울
2008 금산도쿄갤러리, 도쿄
2005 종이의 시학, 환기미술관, 서울
2004 동산방화랑, 서울
갤러리 까레 데 꾸아나르, 노장 쉬르 마른, 프랑스
2001 동산방 화랑, 서울

- 1996 갤러리 파스칼 반호엘크, 파리
- 1995 동산방 화랑, 서울
- 1994 갤러리 쿠루스보자르, 파리
갤러리 그랑마스데 보자르, 파리

그룹전

- 2008 내마음의 보물, 서울시립미술관
- 2004 파리미술제, 루브르 박물관 카루셀전시관, 파리
빛살무늬에 대한 추억 - 8인의 선과 드로잉, 갤러리 조선, 서울
- 2003 파리미술제, 루브르박물관 카루셀전시관, 파리
사유와 시간의 조형 세계- 4인의 종이 작업, 환기미술관, 서울
한국미술인 프랑스 100년사, 갤러리 가나 보부르, 파리
- 2002 그들만의 방, 한국문화원, 워싱턴
- 1998 아시아 아방가르드, 크리스티, 런던
- 1996 쥘느 뽕뛰르 살롱전, 파리
- 1995 몽루즈 살롱전, 몽루즈, 프랑스
쥘느 뽕뛰르 살롱전, 파리
갤러리 아레아, 파리
쥘슈초대전, 쥘슈, 프랑스
- 1994 몽루즈 살롱전, 몽루즈, 프랑스
비트리 살롱전, 비트리 쉬르센느, 프랑스

아트페어

- 2009 홍콩아트페어, 홍콩
- 2008 화랑미술제, 부산
- 2007 상하이 아트페어, 상하이
베이징 아트페어, 베이징

III. 윤향란의 작품세계

1) 작가노트

윤향란

배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술가는 피카소도 반 고흐도 아닌 바로 우리 어머니이다.

김치를 가장 맛있게 담그는 우리 어머니이다.

배추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

어머니가 담근 김치를 먹으면서, 김치의 독특하고 오묘한 맛에 폭 빠질 때 마다.

그 순간 만큼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무척 행복해 한다.

매일 김치를 먹으면서 살다가, 김치를 쉽게 먹을 수 없는 프랑스에 살면서

밥을 먹을 때마다 무언가 허전하기만 하다.

가끔, 동네 시장에서 배추를 발견하기라도 한 날은 마치 가족이나,

친구를 만난 듯 반갑기만 하여, 배추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배추그림이라도 그리면서 속을 풀어본다. 한국의 정서가 듬뿍 베어있는 그런 배추,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듯 그런 배추를 그리고 싶다.

배추그림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움이다.

서류위의 붓놀이

다달마다 보내오는 영수증, 서류 등을 해결하다 보면 삶에 쫓기는 듯하다.

세금신고, 작가등록(Maison des Artistes), 집세, 전기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작업에 대한 생각보다, 이 서류문제들로 늘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무겁다.

사회에 적응하며 사는데,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서류 등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이 서류들 틈 속에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며 가을을 보내고, 꽃피는 봄 또한 놓치기 일쑤다.

그러나 이 서류 등은 프랑스에 외국인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방인으로서의 나의 정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서류이기도 하다.

나의 책꽂이에는 몇 년간 간직한 서류철 등이 한층, 두 층씩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다. 기간이 지나

아무소용이 없어진 버려도 되는 서류들이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 때는 이 서류들로부터

도망하고 싶었는데, 왜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휴지통에 버려야 할 운명에 나만의 방법으로 제2의 생명을 불어 넣어본다.

A4용지의 차가운 인쇄체글씨 위로 파란선 획을 휘갈겨 본다.

더 용기를 내어 로고위로 가뿐히 한 획을 긋고, 위엄적인 도장에도 한 점을 힘 있게 찍어 내린다.

사인과 여백사이로 여린 물감이 번지게 한다.

자유로운 손놀림으로 글씨를 쓰는 듯, 낙서를 하는 듯하지만, 마음 가는 데로 붓놀이를 하니 서류의 압박감에서 해방된 기분이다.

이렇게 해서 서류와의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2) Y씨의 은밀한 드로잉

이지호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팀장)

윤향란은 캔버스 위에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힘차게 목탄 드로잉을 한 후 붙였던 종이를 다시 뜯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화면에 남겨진 종이 자국과 목탄으로 그린 선의 조화는 오직 생존을 위해 그려야 했던 원시인들의 벽화처럼 본능적이며 뛰어난 직감을 보여준다. 감정에 충실한 선과 단색조의 이미지가 배추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작가는 구체적으로 대상을 보고 기억하고 묘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이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바탕과 그림의 경계가 사라지게 했다. 그래서 작가의 자유로운 표현만이 존재하는 추상 표현주의적 양상을 띤다.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을 표현하다 보니 최근 작품에서는 배추와 같은 유기적인 이미지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콜라주와 데콜라주’ 라는 표현 방식도 주춤한 상태다. 공간 속에 오로지 선만 존재한다. 선으로 표현된 화면은 붙이고 뜯어내는 미술 행위의 장이 아닌 정신을 표현한 추상적 표현의 공간일 뿐이다. 여기서 드로잉은 어떤 그림의 예비 작업 혹은 밑그림의 한계를 넘어 작가의 생각과 심리적 상태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

작가는 25년 이상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느낀 불편함과 피곤함을, 과감하게 지워버린 이미지 대신 거칠고 투박한 추상적인 선들로 채운다. 이 화면을 채우는 선들은 해외 생활에서 필요한 공과금 영수증이다. 작가는 작업 노트에서 “작업에 대한 생각보다 매달 받아보는 세금 신고서, 작가 등록증, 전기 요금, 의료보험증과 같은 서류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무겁다” 고 일상의 고통을 토로한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외국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문서이며 또 다른 자신이다.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이 문서들이다. 외국인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의 상징물들이다. 이것들은 과거의 개인적인 서류들로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들은 쉽게 버릴 수 없는 애환의 상징물들이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드러내 타인과 공유하면서 위로받고, 타인을 위로하고 싶은 바람이 드로잉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닐까?

작가의 행위가 개입된 문서들은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의 기능을 담보할 수 없다. 작가의 생각과 체취가 묻어나는 캔버스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작품으로 당당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작가의 은밀하고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진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곧 세상과 소통하는 출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다시 말해 드로잉과 함께 “콜라주와 데콜라주” 라는 회화적 기법이 강조된 예전 방식과는 달리, 일상에서 차용한 공문서 위에 하는 드로잉은 실존적 존재로서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크고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